

선교사역보고서

존경하는 박동한 담임목사님과 경주제일교회 성도님들께

살림~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4년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5등급 태풍 ‘베릴’을 직접 체험할 뻔했습니다. 4-6월 메리다는 원래도 40도가 넘어가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올해는 그 어떤 때 보다 더욱 더웠습니다. 체감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가니 정부에서 낮에는 가능하면 실내에서 생활하라고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6월을 보내면서 온도가 좀 떨어지더니 갑자기 초특급 태풍이 카리브해에서 올라온다고 모두 긴장모드로 7월 초까지 지냈습니다. 좋은 경험으로 전에 TV에서만 보았던 마트 사재기를 경험했습니다. 마트에 생수, 휴지, 비상식량, 노끈, 테이프 등 등이 났습니다. 저희도 이웃들처럼 창문에 테이프 붙이고, 가스통은 날라가지 않도록 쇠사슬로 고정시키고, 휴대용 버너랑 라면 한 박스를 급히 구매했습니다. 정부가 매일 보내는 태풍대비 매뉴얼대로 다 따라하고 마음준비하고 기상예보 어플로 태풍과 만남을 기다렸는데 베릴태풍은 유카탄 반도를 지나가면서 경로도 바뀌고 (원래 저희 동네 위로 지나갈 예정이었음), 등급도 5급에서 열대 폭풍으로 급하락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8-10월에 또 온다는 태풍대비를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학사 일정을 따릅니다. 새학기는 9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6월에 끝납니다. 초등학교 수업은 대부분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1시 30분에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프로그램이 없으며, 아이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게 됩니다. 유카탄 주 전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학교 졸업생들과 협력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오후 보충 수업을 내년 2월(2학기부터) 시작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주 2회- 하루에 두 가지 활동- 총 4가지 활동이 있으며, 스페인어 보충교육(고학년 아이들 중 읽기쓰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성경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음악, 그리고 단체 스포츠 클래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교사 급여와 교육 자료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2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4개의 유닛이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4개의 교회에서 시작되며, 매년 유닛 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신학교 총무, 네 교회의 목사들, 그리고 현직 교사와 교육자들로 구성된 운영그룹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 방과후학교 활동의 커리큘럼과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전적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바램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이들에게 수업시간 후 영양가가 있는 간단한 간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에는 Buena Noticia(좋은 소식) 어린이전도사역 강습회가 신학교 다목적실에서 열렸습니다. 멕시코 중부에서 사역하시는 윤Jaime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주일학교 교사 수십명이 어린이전도훈련을 이론과 실습을 배웠습니다. 감사한 것은 메리다 주변보다 멀리서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 팀은 치아파스(Chiapas)지역에서 차로 12시간 이상 달려와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신학교집중강의가 열렸고 윤선교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6월 말부터는 단기선교를 준비했습니다. 7월 15일에서 20일까지 메리다에서 1시간 반 떨어진 테킵(Tekit) 도시와 주변 마을들에서 샌디에고한인연합교회 단기선교팀이 어린이여름성경학교와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여름성경학교를 섬기고 장년들은 가가호호방문전도, 안경, 약, 침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주민들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고 저녁에는 예배를 통해 그들의 아프고 메마른 영혼을 치료했습니다.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큰 도시들을 벗어나면 의료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이번에도 신학교 졸업생인 현지 의사들이 합류해서 내과진료, 치과치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들이었고 1년동안 배운 서투른 스페인어로 저희는 안경사역에 통역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심플한 안경 하나가 없어서 수년동안 불편했던 삶이 자기에게 맞는 안경과 만났을 때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선교팀원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숨기지 않고 기쁘게 활용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7월 19일에는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전역에서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중직하면서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주경야독을 통해 공부를 마친 목회자, 교회 리더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졸업생들 중 몇 명은 신대원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소원과 기도제목은 이들이 신대원 공부하고 계속 공부해서 현지인 신학박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졸업생출신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꿈을 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키즈워십선교회에서 부탁받은 어린이성경이야기 번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더위 때문인지 브라질을 떠나서인지 진도가 잘 안 나갔지만 많은 기도의 힘으로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구원의 확신」 책과 한국복음송 번역을 시작 할 수 있어서 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건 비자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종교비자를 갱신했고 아이들은 드디어 임시거주비자를 받았습니다. 종교비자는 원래 매년 갱신해야하는데 이번에 신청할 때 이민국 직원이 ‘몇 년 짜리 비자신청할래?’ 물어보길래 최대기간인 3년짜리 비자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서류 한두개 추가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멕시코시에만 있는 한인공증번역사에게 서류공증받아 신청해서 3년종교비자 받았습니다. 기간이 길어진 만큼 비자비용도 올라갔지만 앞으로 3년동안 비자걱정 안해도되는 편리함이 잠시나마 5월에 찌던위를 잊게 해줬습니다. 아이들은 내년에도 비자갱신을 해야하지만...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2분기 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역보고 - 2024년 2분기]

- 가. 로고스신학교 intensive과정 강의 청강
일 시: 4월 16-18일, 5월 28-30일, 6월 18-20일.
- 나. 어린이성경이야기 한포 번역
요 청: 키즈워십선교회(대표 이기동 목사)
일 시: 2024년 1월-6월
자 료: 예수님 이야기 30편

- 다. 샌디에고연합장로교회 단기선교 준비회의
일 시: 2024년 4월 27일(토), 5월 14일(토) 오전11시
장 소: Zoom(온라인)
- 라. Buena Noticia 어린이전도사역 강습회 서포트.
일 시: 6월 15일(토) 오전 9시~ 오후 4시
강 사: Jaime Yoon 선교사
장 소: 로고스 신학교
- 마. 현지인 목회자 큐티잡지 보급
교 회: 아마존 JESUS CRISTO REI DAS NAÇÕES교회 (열방의 왕 예수 그리스도 교회)
비 고: 상파울로연합교회에서 제공하는 포어판 큐티잡지

[사역계획 - 2024년 3분기]

- 가. 로고스신학교 intensive과정 강의 청강
일 시: 9월 9-11일, 10월 11월 중반,
- 나. 신학책 『구원의 확신』 한포 번역
요청자: 김진욱 목사(인천교회)
일 시: 2024년 12월까지
- 다. 복음성가 한포 번역
요청: 남미위십 찬양팀/LAMP (대표 박지범 목사)
일 시: 2024년 말까지
자 료: 어노인팅 찬양곡들.
- 라. 브라질기독교법조인협회 온라인 중보기도모임 참석.
일 시: 주일 오후 1시 (브라질 오후 4시)
- 마. 방과후학교 준비회의
일 시: 7월 29일(월) 오후 3시, 9월 30일(월) 오후 4시
주 최: 로고스신학교, 로고스 동문회
참가자: 오베드로선교사, Jorge목사, Miguel목사, Monika목사, Giezi 총무
- 바. 이신영 선교사 성경적상담학 박사과정 3학기
일 시: 매주 화요일 오전 3시-8시
장 소: 줌(온라인)
- 사. 신학교 2023-2024년 졸업식
일시: 2024년 7월 19일 오후 7시
장소: 로고스 신학교 강단
- 아.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 단기선교팀 협력
일시: 7월 15-20일
장소: 때깃(Tekit), 친킬라(Chinkila), 레판(Lepan)
- 자. Campeche주 목회자들 대상 신학교홍보
일 시: 9월 10-12일
장 소: 팰렌케(Palenque)장로교회 (메리다에서 7시간 거리)
참 가: 신학교 교수진과 이사장
- 차. 스페인어 공부 (오베드로 7급, 이신영 3급)
일 시: 9월~12월
장 소: UNAM - 멕시코연방대학교 어학원 메리다분교

-끝-

저희 가정과 멕시코를 위해 친히 기도해주시는 박동한 담임목사님과 경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관심과 후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7월 31일 오베드로 이신영 드림

① 기도제목:

- 1) 저희 가정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 2) 현지 언어 학습과 문화 이해도 향상
- 3) 문서선교(스페인어, 포어) 동역자들 만나도록
- 4) 주님이 예비하신 협력할 현지교회(목회자, 지도자)와 만나도록
- 5) 2024-25학년도에 수업을 시작하는 신입 신학생들을 위해.
- 6) 말씀목상+통독사역이 신학생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 7) 멕시코와 중남미를 위해 기도하는 후원교회들과 만남
- 8) 멕시코와 유카탄 문화와 역사와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 9) 이중직목회를 하는 신학생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졸업하도록
- 10) 이신영 선교사 박사과정공부를 잘하도록, 재정이 채워지도록
- 11) 방과후학교 준비가 잘 되어서 2025년 2월에 스타트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 12)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는 아델손 목사와 JESUS CRISTO REI DAS NACOES교회에 큐티 사역을 위해. 온교회가 말씀목상을 지속하도록.
- 13) 한포번역 「구원의 확신」(김진욱, 한국장로교출판사) 이 기간내에 마무리되도록.
- 14) 로고스신학교 동창회가 잘 조직되어서 멕시코의 중남미교회를 섬기도록
- 15) 신학교 강의통역으로 섬기는 마히엘리와 알렉스 자매들이 통역을 잘 하도록
- 16) PCK 멕시코선교회 서기-회계로 2년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